재즈 선율 위에 흐르는 〈반야심경〉

찬불가 가수 강혜윤, 디지털싱글 '반야심경' 발매

국내 최초 산스크리트어로 노래
몽환적 · 청초한 멜로디 돋보여
완성도 높이려 발음 연습 매진
약사여래진언 보사노바곡 준비중

찬불가 가수 강혜윤이 7년 만에 디지털싱글 'Prajñ¤p¤mit¤Hṛdaya S¤tra(반야심경)'로 돌아왔다.

신곡 'Prajñ¤p¤mit¤Hṛdaya S¤tra'는 반야심경을 산스크리트어로 부른 노래다.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과 재즈의 이색적 만남에 강혜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져 신비로우면서도 청초한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중독성 있는 후렴구 'gate gate p¤ragate p¤¤asaṃgate bodhi sv¤¤¤가떼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 스와하)'와 몽환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작곡은 2집 'Samsara'를 프로듀싱했던 문성억 씨가 맡았다.

강혜윤은 2006년 1집 찬불가 '패랭이꽃과 나그네', 2집 찬불가 'Samsara'를 발표하며 주목받은 신예 찬불가 가수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서 불교를 전공하며 불교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군부대 · 전국불교청년대회 ·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 등서 음성공양을 펼쳐왔다. 현재는 통일부, Arirang TV 등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도 활동 중이다.

강혜윤은 반야심경과 인연이 깊다. 1집에선 지허 스님 버전의 반야심경 한글 독경을 수록했으며, 2집에선 반야심경을 랩으로 해석한 순야타의 곡이 실렸다. 이번엔 강혜윤이 직접 산스크리트어로 반야심경을 노래해 더욱 의미 있다. 반야심경을 산스크리트어로 부른 것은 국내 최초라는 게 기획사 '연꽃의소리' 측 설명이다.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혜윤 씨는 산스크리트어 발음 연습에 매진했다고. 산스크리트어는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의 연구서 표기에 따랐으며, 이동원 한국외대 강사의 감수를 받았다.

"짧은 기간이나마 산스크리트어를 배운 적이 있지만 막상 노래를 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음을 제대로 살려서 노래해야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발음 연습에 매진했어요."

이번 곡을 시작으로 강혜윤 씨는 다양한 만트라(진언)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이번 디지털싱글의 후속곡 'Medicine Buddha Mantra: Bhaiṣajyaguru Mantra(약사여래진언)'을 작업 중이다. 약사여래진언은 보사노바 스타일의 곡으로 다양한 국악기를 활용해 음악성을 더욱 가미시킬 계획이다.

재즈 선율 위 반야심경, 보사노바풍의 약사여래진언. 분명 평범하지 않은 시도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강혜윤 씨의 '베짱'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이를 두고 강 씨는 '찬불가계 막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불교를 떠올릴 때 정형적이고, 고착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불교도 충분히 자신만의 박자로 새롭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재즈란 장르를 선택한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들은 제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환희심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제 역할 아닐까요?"

강혜윤의 새 디지털싱글 'Prajñ¤p¤mit¤Hṛdaya S¤tra(반야심경)'은 2월 16일 모든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박아름 기자



자장매, 통도사를 수놓다

2017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 '매화, 성보를 물들이다'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봄의 전령사, 매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통도사에서 자장매 향기에 가득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17 기획전 '매화, 성보를 물들이다'를 마련하고 통도사 자장매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상춘객들을 맞이한다. 6명의 작가와 함께 총 3회에 걸쳐 매화의 장을 펼친다.

2월 첫 번째 전시는 김창한 작가의 '매화'로, 2월 18일~3월 10일 진행된다. 자장매를 중심으로 고매에 담긴 한국적 미의 원형과 근원적 아름다움을 유화와 아크릴로 표현, 현대적 이면서도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김 작가는 전시기간 중 영각 앞(또는 종무소 옆)에서 만개한 자장매화를 직접 그리는 시연을 펼친다.

3월 14일~4월 2일엔 차규선 작가가 '통도사에 매화 피니 삼라만상 거기 있네'를 주제로 전시한다. 통도사 매화를 분청사기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도자기 흙을 기본으로 고착안료 등을 혼합해 캔버스 표면에 바르는 독특한 작업 방식이다.

마지막 전시인 '매화, 묵향을 담다' 展에선 윤영석 · 김태완 · 이보배 · 이윤정 4명의 작가가 협연해 지는 매화의 여운을 문방사우로 화선지에 표현한다. 4월 8~30일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음성포교사 인력 양성소' 찬불가 지도사 과정

동국대 평생교육원, 찬불가 지도사 과정 8기 개강



찬불가 지도사 과정에 참여 중인 수강생들 모습.

찬불가를 배울 뿐 아니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찬불가 지도사 과정은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불교음악 아카데미다. 전국 사찰 등에서 찬불가를 가르칠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과정이다. 2013년 2학기 강형진 아카사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중심으로 개설된 후 2015년 2학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찬불가 지도사 민간자격증 승인을 받았다. 오는 3월 13일 8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이 과정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찬불가 지도사는 17명이다. 몇몇은 이미 사찰에서 찬불가 지도를 시작했으며, 전문적 커리큘럼과 강사진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음성포교사' 전문 인력 양성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형진 대표는 "그동안 불교음악의 전문화에만 치우쳐 대중화는 고려하지 못했다.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선 실력 있는 지도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부터 심화까지 꼼꼼하게 가르치는 찬불가 지도사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음성포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찬불가 지도사 과정은 2급과 1급 과정으로 나뉜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진행되는 2급 과정은 △기초음악이론 △국악의 이해 △찬불가 역사의 이해 △불교와 음악 △기초지휘법 등을 배우며, 총 15강에 수강료는 45만원이다. 같은 날 오후 7시 열리는 1급 과정은 △찬불가 지도법 △심화가창법 △Coaching Ensemble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며, 총 15강에 수강료 50만원이다.

강사진은 불자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교수들로 구성됐다. 국립교향악단 및 KBS교향악단 바이올린 주자 등을 역임한 강형진 총괄대표를 비롯해 이정화 주임교수, 차은선 · 이동원 · 강유정 · 박선영 교수 등 국내외서 고루 활동한 실력파 라인업이다.

이정화 주임교수는 "찬불가를 따라 부르기만 했던 보살님들이 전문적으로 배우며 누군가를 가르치니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해 역량 있는 찬불가 지도사들을 많이 배출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차은선 교수는 "찬불가는 경전보다 부처님 말씀을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찬불가가 포교의 핵심 수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수진들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찬불가 지도사 과정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찬불가를 배울 수 있는 힐링스쿨 과정도 마련했다. 기초반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심화반은 같은 날 오후 7시 진행된다. 각 15강, 수강료는 40만원. (02)2260-3728 박아름 기자

고려불화, '문화예술의 메카' 뉴욕에 상륙하다

뉴욕한국문화재단, 4월 20일~5월 3일 '고려불화, 그 신비함과 화려함' 展

문화예술의 메카 뉴욕에 한국 불교미술의 꽃 고려불화가 상륙한다.

뉴욕한국문화재단(이사장 김지영)은 4월 20일~5월 3일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고려불화, 그 신비함과 화려함' 전시를 진행한다. 해남 대흥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조이락 · 강창호 · 현승조 불화작가가 참여, 각각 10점 · 5점 · 5점 총 20점의 고려불화 모사(模寫)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고려불화만의 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김형근 뉴욕한국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서양미술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고려불화와 고려사경, 그리고 작가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이락 작가는 고려불화 중 최대크기의 수월관음도를 축소모사한 작품을 비롯해 양류관음도, 아미타내영도, 아미타삼존내영도, 지장보살도 등을 선보인다. 조 작가는 "서양화는 자기의 관념과 정서를 투영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불화 모사는 나의 것이 완벽히 배제돼야한다. 내 생각과 관념이 작품에 녹아들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강창호 작가는 아미타내영도 2점을 비롯한 총 5점의 고려불화를 전시한다. 대형 불화를 가로 36cm, 세로 60cm 크기로 축소모사하며 큰 작품이 뿜어내는 장엄함과 섬세한 필력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전언이다.



수월관음도. 조이락 作, 2011, 비단, 159×94.5cm.

마지막으로 현승조 작가는 아미타설법도 · 지장삼존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지장삼존도는 일본 일광사에 소장된 지장시왕도서 지장보살 도상을 가져오고, 일본 원각사에 있는 지장삼존도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도상을 가져와 한 폭의 비단 안에 표현, 새 작품을 탄생시켜 눈길을 끈다.

박아름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